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위에서

# 밝게 빛나는 경기의 내일

경기주택도시공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담아 도시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GH의 '내일은 만드는 기회'는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GH를 안전보건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글 기사윤 사진 김재이

안전

**스마트안전관리통합관제시스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도록!**

GH는 100% 경기도 출자 공기기업으로 1997년 설립 이래 경기도 내 주택공급,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주거복지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3기 신도시 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스마트도시 건설 등 변화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토목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부터 대규모 산업단지를 완성하기까지, 중대재해발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업 특성상 협력사를 아우르는 안전보건체계는 필수. 안전경영실은 GH 최고경영자 직할 소속으로 '안전은 인권이다'라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아래 안전보건문화 전파,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사항 마련 등 안전보건부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무적 성과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도입된 ‘스마트 안전관리통합관제시스템’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안전 사고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해서 공정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위험도를 수치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CCTV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지요.”

노동자의 그날 건강 상태와 공사 현장, 기상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작업 위험도를 측정해 노동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안전경영실 성문제 실장의 설명이다. 사고 예측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이는 ‘안전은 인권이다’라는 경영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GH가 가장 최우선시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GH는 올해부터 모든 발주 공사 현장에 스마트안전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보건**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 모든 노동자가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GH 안전경영실은 올해를 ‘참여형’ 안전보건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하여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중이다. GH가 대한보건협회에 문을 두드린 이유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평가·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으로서 건설 안전 분야 쪽에는 탄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게 사실이었죠. 컨설팅 전 직원들을 위한 보건 활동은 소위 건강검진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안전경영실 보건관리자 김진운 대리는 “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보건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보건관리지침은 건강진단 및 사후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근골계질환 관리, 건강증진 활동 등의 계획 수립법과 실행과제 등으로 이뤄져 체계적 보건관리법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부분에서도 큰 개선점을 이뤄낸 것이 눈에 띄는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협회의 컨설팅은 보건관리지침 제정 외에도 ▲노동자 응급상황 매뉴얼 제작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인·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대재해컨설팅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미비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전문적이고 빠르게 피드백해 줘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문제 실장은 협회의 컨설팅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도록 하지 않고,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척도로 삼겠다고 한다.





내일

## 기회를 만드는 GH GH의 내일을 뒷받침하는 안전보건

GH는 '내일을 만드는 기회, 기회를 만드는 GH'를 슬로건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고품격 주거공간 확대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동반성장 기회 공간 창출 ▲신뢰 기반 혁신경영은 GH의 전략으로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게 GH의 궁극적 미션이다. 이는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한 일.

"안전경영실의 전신이 '안전품질단'이었는데요.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품질 부문이 분리되고 안전보건경영에 자원과 인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현장 관리자 및 노동자에게 내재화시키는 것, 안전경영실의 임무이자 GH의 미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경영실의 어깨는 유독 무거운 수밖에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열심히 작동될 때는 눈에 보이는 일이 없지만, 자칫 정한 규칙과 활동이 하나라도 소홀히 될 때 눈에 띄는 사고들이 일어나는 법이잖아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저희가 구축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빈틈 없는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Mini interview

## “안전보건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문제 실장 안전경영실

**Q. GH 안전경영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GH는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2022년 2월 '안전운영TFT'를 신설했는데요. 올해 '안전운영TFT'가 '안전경영실'로 격상되면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안전기획부'와 발주 공사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부'로 구성돼 예방 차원의 안전보건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GH 안전경영실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스마트안전관리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구축,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와의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GH가 진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부문 역량을 더욱 강화해가겠습니다.

